

## 제43회 한·일, 일·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축하 메시지

존경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·한협력위원회 회장, 남덕우 한·일협력위원회 회장, 그리고 양국 위원 여러분,

한·일, 일·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가 도쿄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울러 양국 간의 선린우호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

우리 두 나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이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 작년 한 해 동안 460만 명의 양국 국민들이 왕래할 정도로 인적, 문화적 교류가 폭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우리 두 나라가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.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양국이 한 차원 더 높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지난달 6자회담에서 이뤄진 '2·13합의'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앞으로 우리 두 나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합의를 성공시켜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.

그런 점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총회에서 동북아 정세와 한·일협력에 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,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.

양국 협력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